

2017년 12월 6일

투자전략 Daily

- **시황분석**
엔화도 강세로 간다면?
- **중화권 증시 동향**
중화권 증시 변동성 확대 흐름 지속
- **전일 시장 특징주 및 테마**
- **KIS 투자유망종목**
단기 유망종목: 유니슨 외 5개 종목
중장기 유망종목: 한솔시큐어 외 5개 종목
- **산업/기업분석**
호텔 · 레저, 철강, 통신서비스, 두산밥캣, 송원산업
-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증시 캘린더**

전 략 총 괄 | 노근환
투 자 전 략 | 박소연
시 황 분 석 | 김대준
계 량 분 석 | 안 혁
스 몰캡 전략 | 정훈석
해 외 주 식 | 백찬규
중 국 시 장 | 최설화
신흥국/원자재 | 서태종
글로벌기업 | 정희석
자산배분전략 | 정현종
경 제 분 석 | 박정우
채 권 분 석 | 오창섭
크 레 디트 | 김기명

주요 증시 지표 및 주체별 거래 동향

◆ 주요 증시 지표

구 분		11/29(수)	11/30(목)	12/1(금)	12/4(월)	12/2(화)	
유가증권	종합주가지수	2,512.90	2,476.37	2,475.41	2,501.67	2,510.12	
	등락폭	-1.29	-36.53	-0.96	26.26	8.45	
	등락종목	상승(상한)	360(0)	296(0)	346(1)	400(1)	520(5)
		하락(하한)	426(0)	504(0)	426(0)	387(0)	282(0)
	ADR	95.76	94.55	92.14	93.64	96.47	
	이격도	10 일	99.39	98.17	98.36	99.51	99.92
		20 일	99.12	97.81	97.94	99.07	99.47
	투자심리	50	40	40	50	50	
	거래량	(백만 주)	301	339	289	324	389
	거래대금	(십억 원)	5,278	9,398	5,740	6,056	5,836
코스닥	코스닥지수	781.72	771.42	787.7	782.45	774.12	
	등락폭	8.6	-10.3	16.28	-5.25	-8.33	
	등락종목	상승(상한)	621(3)	318(8)	745(5)	469(6)	664(6)
		하락(하한)	511(0)	854(0)	378(0)	684(1)	483(0)
	ADR	101.55	98.88	101.48	100.21	101.59	
	이격도	10 일	99.60	98.39	100.32	99.69	98.82
		20 일	103.84	101.96	103.52	102.30	100.73
	투자심리	60	50	60	50	40	
	거래량	(백만 주)	755	1054	884	821	842
	거래대금	(십억 원)	6,725	7,136	6,900	6,956	6,798

◆ 주체별 순매수 동향

(단위: 십억원)

구 분	개 인	외국인	기관계 (금융투자)	(보험)	(투신)	(사모)	(은행)	(연기금 등)	기 타		
유가증권	매수	2,877.7	1,494.1	1,389.5	309.0	99.9	211.0	137.4	16.9	615.3	82.5
	매도	3,225.3	1,440.3	1,125.8	235.3	80.7	166.2	84.5	11.1	548.0	52.4
	순매수	-347.7	53.8	263.7	73.7	19.2	44.7	53.0	5.8	67.4	30.1
	12월 누계	-465.4	7.1	441.6	181.7	58.9	111.0	84.2	13.0	-7.2	16.6
	17년 누계	-6,129.6	8,084.6	-6,813.6	8,494.4	-2,078.2	-3,516.7	-238.6	-774.8	-8,700.0	4,858.6
코스닥	매수	6,101.6	478.6	202.2	88.3	15.2	41.4	27.0	2.8	27.6	42.2
	매도	6,036.3	512.2	227.8	60.4	15.7	56.4	50.2	5.1	39.9	48.3
	순매수	65.3	-33.6	-25.6	27.9	-0.5	-15.0	-23.3	-2.3	-12.3	-6.2
	12월 누계	28.1	-25.1	38.6	101.5	-0.1	25.2	-21.5	-9.9	-56.5	-41.6
	17년 누계	2,163.3	2,626.4	-2,954.9	187.4	-336.9	-858.1	-678.7	-88.4	-1,180.2	-1,834.9

엔화도 강세로 간다면?

2018년 Target KOSPI	2,900pt
12MF PER	9.74배
12MF PBR	1.10배
Yield Gap	8.2%P

- ▶ 아시아 통화의 강세: 엔화를 포함한 아시아 통화들은 달러대비 강세
- ▶ 엔화 강세 요인: 스텔스 테이퍼링, 일본 경기 호조세, 투기적 숏 포지션 감소
- ▶ 원/엔 환율 상승 반전시 자동차, IT 등 수출 경합 업종을 주목할 필요

■ 아시아권 통화들의 강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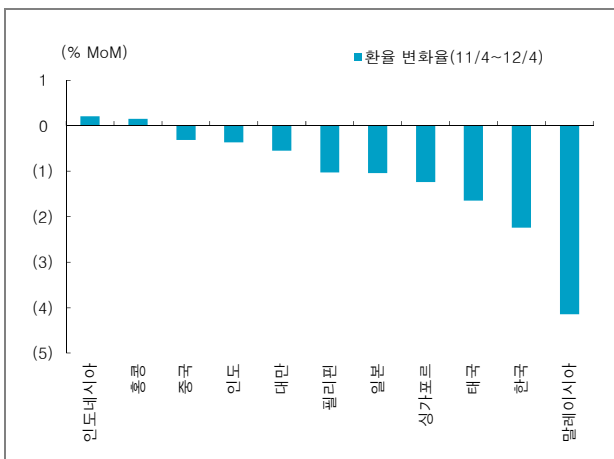
아시아권 통화들은 달러대비 강세 지속

최근 외환시장에서 달러 이외 통화들의 가치가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 아시아에서는 인도네시아 루피아화와 페그제를 유지 중인 홍콩 달러화를 제외하면 대부분 통화들이 달러대비 강세다. 그 중에서 한국 원화는 말레이시아 링깃화 다음으로 절상률이 큰 상황이다.

아시아에서 선진국으로 분류되는 일본의 엔화도 다른 통화들과 동일한 흐름이다. 4일 기준으로 엔/달러 환율은 전월대비 1.0% 하락한 112.88엔을 기록했다. 일본은행의 통화완화정책이 지속되는 가운데 나타난 변화라서 조금 더 눈길이 간다.

필자는 엔화 방향성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최근 흐름이 일시적 현상인지 아니면 변화의 시발점인지에 따라 우리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흥미로운 점은 엔화 흐름과 관련해 변화의 신호들이 곳곳에서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특히 엔화 강세와 연결될 수 있는 요소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림 1] 아시아권 통화의 달러대비 절상률



주: 12월 4일 기준. (-)는 통화절상, (+)는 통화절하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그림 2] 엔/달러 환율 추이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 엔화 강세를 자극하는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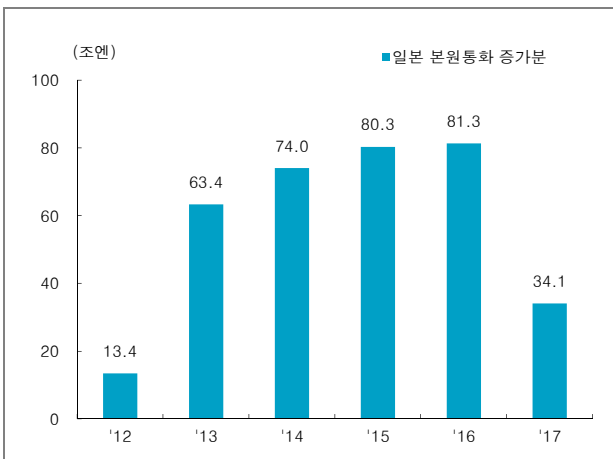
엔화 강세 자극 요인:
(1) 스텔스 테이퍼링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일본은행의 통화정책이다. 2013년 3월 취임한 구로다 총재는 아베노믹스를 지지하기 위해 4년 이상 통화완화를 지속했다. 연간 80조엔을 시중에 공급하는 양적완화가 대표적이다. 그런데 최근 여기에서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

일본 본원통화는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34.1조엔이 늘어났다. 아직 12월이 남아있지만 규모면에서 작년과 제작년 공급분인 80조엔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양이다. 일각에서는 이것을 ‘스텔스 테이퍼링’이라 부른다. 몰래하는 양적축소라는 의미다.

구로다 총재의 발언도 약간씩 달라지고 있다. 지난 13일 스위스 강연에서는 저금리가 지속되면 금융완화 효과가 약화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전일 참의원 금융위원회에선 통화완화를 유지한다고 설명했지만 금리는 이미 위로 올라간 상황이다. 이를 반영해 주식시장에서 일본의 3대 은행 주가도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 통상 금리 상승은 은행주와 통화 가치의 강세로 연결될 수 있는 요인이다.

[그림 3] 일본 본원통화의 연도별 증가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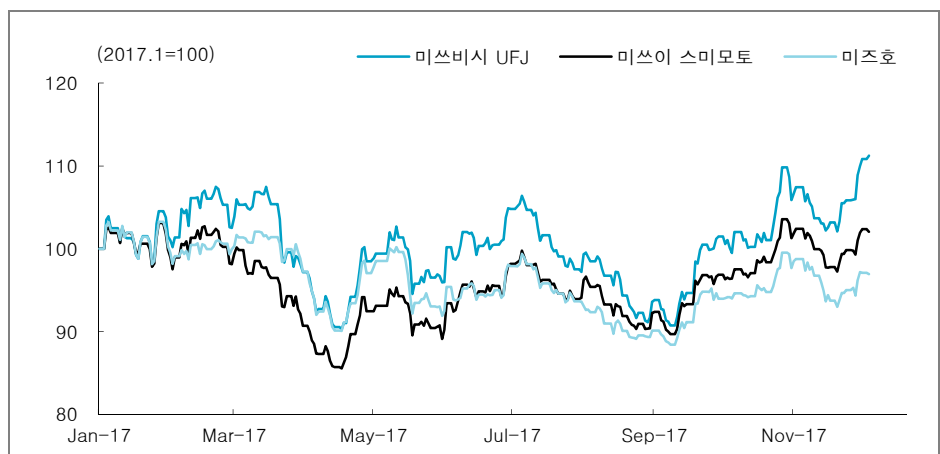
주: 2017년은 11월 수치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그림 4] 일본 국채 10년 금리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그림 5] 일본 3대 대형 은행의 주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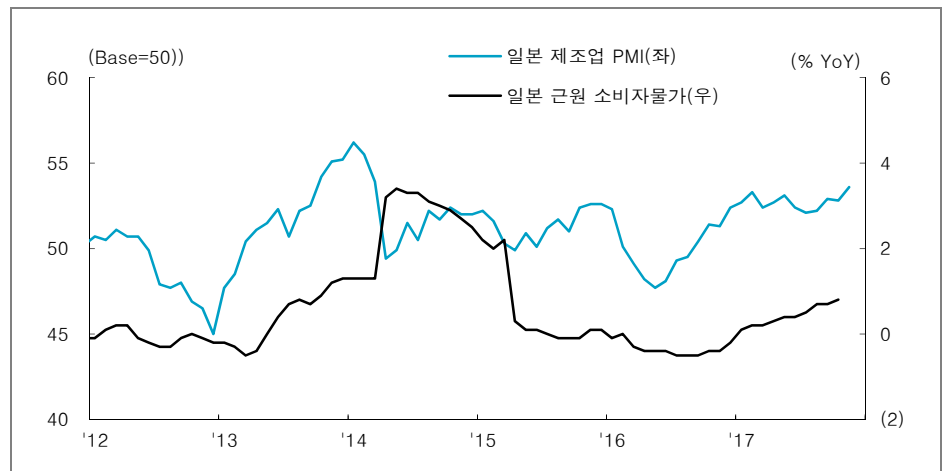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엔화 강세 자극 요인:
(2) 일본 경기 호조세

일본 경기의 호조세도 엔화 강세를 자극하는 요인이다. 얼마전 발표된 11월 제조업 PMI는 53.6을 기록하며 2014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일본 제조업 상황이 예전보다 좋다는 점은 공작기계 수주 현황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올해 들어 인플레이션 압력도 점차 강해지고 있다. 근원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지속적으로 상승해 0.8%에 이른 것이다. 아직 일본은행의 목표치 2%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2013년과 같은 완연한 상승세를 보인다는 점에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질 수 있다. 특히 엔화 흐름과 관련해 기대감은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그림 6] 일본 제조업 PMI와 근원 소비자물가 상승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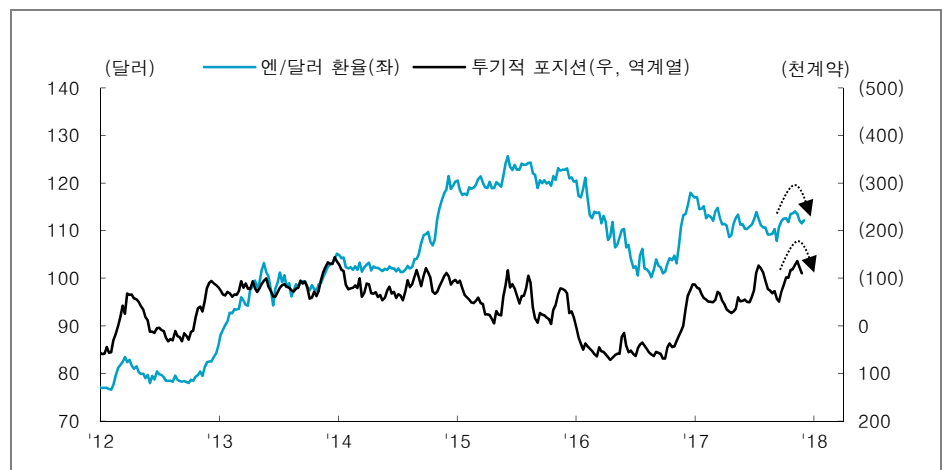


주: 근원 소비자물가는 식품 제외 수치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엔화 강세 자극 요인:
(3) 엔화 숏포지션 감소

마지막으로 스마트머니가 엔화 강세로 스탠스를 바꾸기 시작했다.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에 의하면 2주 전부터 엔화에 대한 숏포지션이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달러 약세 영향도 있겠지만, 이보다는 일본내 이슈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오는 20일 예정된 금정위까지 이러한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그림 7] 엔/달러 환율과 투기적 포지션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 원/엔 환율이 반등한다면?

원/엔 환율 변화를
미리 염두에 둘 필요

지금까지 엔화 강세 가능성을 언급했다. 엔화 가치를 지지하는 요소들이 나타나고 있어서다. 기술한 바와 달리 엔화가 빠른 시일 내에 변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지만 시점의 차이일 뿐 언젠가 발생할 수 있는 이슈이므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우리는 한국 증시에 참여하므로 원/엔 환율 상승 여부를 살펴봐야 한다. 물론 아직까지 의미있는 변화는 없다. 원화 강세 속도가 엔화보다 빨라 원/엔 환율 하락세가 지속되는 상황이다. 현재 원/엔 환율 월평균 수치는 9.7원으로 5개월 연속 내려가고 있다.

그러나 영원한 것은 없듯이 원/엔 환율도 언젠가지 방향이 바뀔 수 있다. 당장 목전에 둔 12월 금정위를 기점으로 변할 수도 있고 좀 더 늦어질 수도 있다. 따라서 여유가 된다면 환율 변화에 따른 업종 전략을 미리 고민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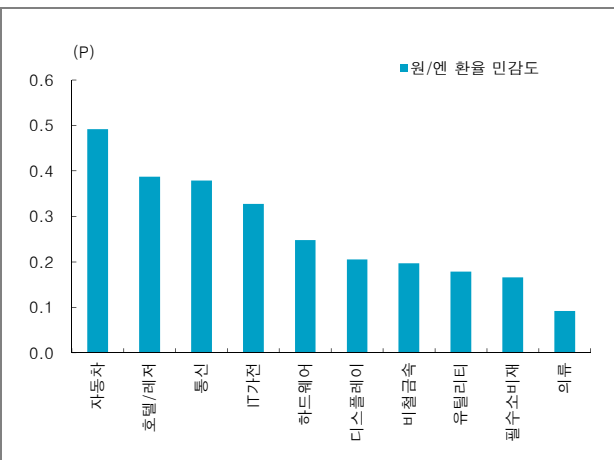
이와 관련해 업종별 성과가 원/엔 환율 변화에 따라 어떻게 바뀌는지 살펴봤다. 예상대로 원/엔 환율이 올라갈 때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업종은 수출 경합도가 가장 높은 자동차다. 호텔/레저와 IT 업종도 원/엔 환율 상승시 좋은 성과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앞으로 원/엔 환율에서 의미있는 변화가 발생할 경우, Top-down 관점에서 전술한 업종을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그림 8] 원/엔 환율 추이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그림 9] 업종별 환율 민감도



주: KOSPI대비 상대수익률과 원/엔 환율 민감도. 최근 5년 기준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하여 작성된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떤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는 당사 리서치센터에서 수집한 자료 및 정보를 기초로 작성된 것이나 당사가 그 자료 및 정보의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으므로 당사는 본 자료로써 고객의 투자 결과에 대한 어떠한 보장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종적 투자 결정은 고객의 판단에 기초한 것이며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에 제시된 종목들은 리서치센터에서 수집한 자료 및 정보 또는 계량화된 모델을 기초로 작성된 것이나, 당사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작성자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중화권 증시 변동성 확대 흐름 지속

- ▶ 상해종합지수는 0.2% 하락, 채권선물지수의 약세 전환에 당국의 긴축 강도 강화 우려 지속
- ▶ 홍콩H지수는 0.3% 하락, 직전일 미국 나스닥 지수의 약세와 국제 유가의 하락이 약재로 작용

■ 중국 시장

상해종합지수 0.2% 하락,
비철금속, IT, 소프트웨어,
기초화학 등의 업종 하락

상해종합지수는 0.2% 하락한 3,303.7p로 마감하며 이틀째 약세를 보였다. 거래대금은 2,435억위안으로 직전일 대비 32% 증가했다. 미국의 세계개혁안, 금리 인상 등 대외적인 변화와 중국의 경제공작회의를 앞두고 방향성에 대한 관망세가 우세했다. 특히 금일 중국 채권선물지수가 오후에 들어 다시 약세로 전환하면서 정책당국의 긴축 강도에 대한 불안이 지속됐다. 업종별로는 금융주를 제외한 모든 업종이 일제히 하락해 지수는 약보합세를 나타냈으나 종목들의 하락폭은 상대적으로 컸다. 특히 비철금속, IT 소프트웨어, 기초화학, 통신, 전력설비, 기계 등 업종들의 하락폭이 컸다. 성장주의 약세 속에 차스닥지수는 2.2% 급락한 1,759p로 마감했고, CSI300지수는 오히려 0.5% 상승 마감해 가치주와 성장주의 차별화 흐름이 지속됐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외국인들은 금일 상해와 심천A주를 각각 27억위안, 4억위안씩 순 매도했다.

■ 홍콩 시장

홍콩H지수 0.3% 하락
보험, 부동산, 소비재, 통신
등의 업종 하락

홍콩H지수는 0.3% 하락한 11,485p로 마감했다. 미국 증시 약세와 더불어 하락 출발한 주식시장은 장중 강세로 전환했다가 막판에 약세로 반전했다. 직전일 미국 나스닥 지수의 약세와 유가 하락, 그리고 오후 본토 증시의 약세가 투자심리를 위축시켰다. 직전일 급등했던 보험주들에 차익매물이 출회했다. 반면 동절기 가동률 하락에 따른 공급 축소로 시크리컬 업종들이 소폭 상승했다. IT주 약세 속에서 항셱지수는 1.0% 하락한 28,842.8p로 마감했다.

◆ 중국 주요 금융지표 추이

(단위: p, %)

구분	12/5 (화)	전일 대비(%)	5거래일 전 대비(%)	1개월 전 대비(%)	연초 대비(%)
상해종합	3,303.68	-0.18	-0.90	-2.02	6.45
심천종합	1,866.98	-1.89	-2.68	-5.51	-5.19
차스닥	1,758.59	-2.18	-1.97	-4.06	-10.37
홍콩H	11,484.69	-0.29	-1.89	-1.01	22.24
Shibor 7일물 금리(% , %p)	2.80	-0.60	-3.42	-0.92	10.07
Shibor 1개월 금리(% , %p)	4.30	1.55	5.70	7.24	30.19
중국국채 3년물(% , %p)	3.89	-0.47	-2.24	0.19	28.21
위안/달러 고시환율	6.6113	0.01	0.12	0.06	-4.70
역내 위안/달러	6.6135	0.10	-0.09	0.31	5.01
역외 위안/달러	6.6184	0.00	-0.15	0.10	5.40

주: 5일 오후 5시 53분 기준

전일 시장 동향과 특징주

기관과 외국인의 시장별 매매가 엇갈리며 혼조 마감

- 뉴욕증시는 세계개편안 통과 기대감에 다우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반면, 나스닥 지수는 1% 이상 하락하며 혼조세로 마감. 2,490P선을 위협하며 하락 출발한 코스피는 금융투자, 연기금을 비롯한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수에 힘입어 상승 전환 후 소폭 오름세를 보이며 2,510P선 회복. 반면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이 이를 연속 동반 매도세를 보이며 하락을 주도, 1% 이상 급락하며 780P선 아래로 밀려남
- 종목별 움직임을 살펴보면, 북미지역 주택 건설 호황이 지속되며 내년에도 매출 성장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에 두산밥캣이 강세를 보였으며, 아이폰X 제품 불량 논란에 휩싸이며 전일 하한가를 기록했던 인터플렉스가 하루만에 반등에 성공하며 7% 이상 급등. 집속형 초음파 리프팅 의료기기가 유럽 인증을 획득했다는 소식에 하이로닉이 급등했으며, 모바일 채널 강화에 따른 실적 개선 모멘텀 강화 전망에 CJ오쇼핑이 신고가를 경신. 또한, 겨울 난방철을 맞아 중국 당국이 환경 보호를 위해 지난 11월부터 철강업체들의 감산을 지시함에 따라 중국내 철강제품 가격 상승에 따른 수혜 기대감에 POSCO를 비롯한 철강주들이 강세를 보였으며, 정부가 2020년까지 스마트 공장을 2만개로 확대한다는 소식에 4차산업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임. 반면, 고속도로 '하이패스' 시스템 등을 만드는 교통 솔루션 전문업체 에스트레픽은 신규 상장 첫날 공모가를 웃도는 시초가를 형성하며 장중 20% 가까이 급등했으나 차익실현 매물로 하락반전 후 급락해 25% 하락 마감

종목/테마	내 용
두산밥캣(241560) ▶36,850 (+4.84%)	내년 매출 성장 기대감에 견조한 오름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출의 70%를 차지하는 북미지역에서 주택건설 호황이 지속됨에 따라 3분기부터 매출액이 본격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조는 내년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에 견조한 오름세 - 아울러, 유럽지역도 건설투자가 늘어나고 캐터필러 소매 판매가 올해 하반기부터 늘어나는 등 회복 기미를 보이고 있음
철강주	중국 감산 효과에 강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의 동절기 감산 여파로 중국 철근가격인 지난달에만 21.7% 상승하는 등 제품가격 상승에 따른 실적 개선 기대감에 강세 - DSR제강(069730, 상한가), 세아제강(003030, +6.43%), 동국제강(001230, +5.65%), 대동스틸(048470, +3.33%), 대한제강(084010, +3.31%), POSCO(005490, +2.22%) 등 강세
4차산업 관련주	정부의 스마트공장 확대 계획에 강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가 현재 약5,000개인 스마트공장을 2020년까지 2만개로 확대할 계획으로, 스마트공장 도입을 위해 자금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히며 강세 - 알에스오토메이션(140670, +16.17%), 디에스티로봇(090710, +7.71%), 디지털옵틱(106520, +6.25%), 오픈베이스(049480, +4.99%), 로보스타(090360, +4.74%), 유진로봇(056080, +4.52%), 엔텔스(069410, +3.97%) 등 강세

참고: 상기 종목들은 전일 시장에서 특징적인 흐름을 보인 종목들로, 추천 종목과는 별개이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52주 신고가 및 상한가

종목	내 용
CJ오쇼핑(035760) ▶237,300 (+5.42%)	- 모바일 채널 경쟁력 강화에 따른 실적 모멘텀 확대 전망에 신고가 경신
선데이토즈(123420) ▶25,900 (+3.60%)	- 신작 게임 '위 베어 베어스 더 퍼즐'이 출시 나올 만에 사전예약 신청자 50만명을 돌파했다는 소식에 신고가 경신

단기 유망종목: 유니슨 외 5개 종목

- 신규 편입 종목

유니슨 (018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 따른 국내 재생에너지 시장 확대에 구조적 수혜 전망 - 작년까지 적자를 기록했던 중국법인이 공정 효율화와 중남미 수주 확대에 따른 가동률 회복으로 올해 턴어라운드 성공했고, 내년에도 이익 개선세는 이어질 전망 - 순이익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PER은 2018년 19.1배, 2019년 12.3배 수준까지 낮아질 전망 					
	(원, 십억원, 배)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EPS	PER
	2016. 12A	58	(9)	(32)	(533)	N.A.
2017. 12F	183	18	9	123	33.9	

- 편입 제외 종목: 신성델타테크 (차익 실현 및 포트폴리오 조정으로 제외 +22.9%)

(단위: 원, %)

종목 (코드)	현재가 (수익률)	편입가 (편입일자)	투자 포인트
다나와 (119860)	13,800 (+27.8)	10,800 (11/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마트폰의 보급과 IT기술의 발전으로 디지털 쇼핑 증가에 따라 가격비교 수요의 저변확대에 따른 수혜 전망 - PC심층에서 가전/가구, 생활용품, 패션잡화 등으로의 플랫폼 확장에 따른 레버지리 효과 기대 - 시가총액의 약 30%에 해당하는 순현금 보유로 추가 하방경직성 확보
하이비전시스템 (126700)	12,650 (-2.3)	12,950 (1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듀얼카메라와 3D카메라 시장의 확대와 고사양화에 따른 검사장비 수요 증가 전망 - 하반기부터 신규 거래처와 장비 매출이 추가되며 삼성과 애플이 전략 스마트폰에 듀얼카메라를 탑재함에 따른 수혜 전망 - 18년 예상 PER 8.4배로 Peer 업종의 평균 PER 16배 대비 저평가
삼성엔지니어링 (028050)	14,300 (+18.2)	12,100 (1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분기까지 중동 플랜트 시장에서 가장 많은 수주를 확보한 것으로 파악되어 글로벌 업체 중 Best performer로 자리매김할 전망 - 최근 유가 상승에 따라 PTT, 페트로나스, SABIC 등 전통적으로 우호적인 발주처의 투자 재개 전망 - 급속한 턴어라운드에 따라 2018년 예상 PER은 16.6배까지 낮아질 전망
한솔케미칼 (014680)	77,100 (+7.4)	71,800 (9/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도체용 과산화수소 매출액이 증가하면서 3분기 매출액은 1분기 수준까지 회복될 전망 - 국내 공장이 100% 가동되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 초부터 신규 설비가 가동되며 매출액 증가 전망 - 금년 초부터 공급되기 시작한 DPT(Double Patterning Tech) 소재의 점유율이 상승하고 있으며 자회사인 테이팩스의 전자재료 사업도 신제품 공급으로 성장폭이 확대될 전망
포스코강판 (058430)	29,150 (-1.5)	29,600 (9/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P(World Premium) 제품 확대를 통한 제품믹스 개선 전망 - 3분기 중국 컬러강판 가격이 크게 상승해 하반기 실적 개선 예상 - 2분기 실적 부진에도 불구하고 밸류에이션 매력이 여전히 높고 높은 배당 성향으로 투자 매력 상존

■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상기 제시된 유망종목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에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와 배무자는 자료 작성일 현재 본 자료와 관련해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당사는 현재 삼성엔지니어링 발행주식을 기초자산으로 ELW(주식워런트증권)를 발행 중이며, 당해 ELW에 대한 유동성 공급자(LP)입니다.

중장기 유망종목: 한솔시큐어 외 5개 종목

- 신규 편입 종목

한솔시큐어 (070300)	- 사물인터넷 생태계의 확장은 eSIM(embedded SIM)의 수요 증가로 이어질 전망					
	- 보안솔루션 전문기업인 G+D(독일 스마트카드업체인 G&D의 자회사)의 지분 투자에 따라 시너지 효과 기대					
	- 2018년 하드웨어 보안을 강화하는 TEE(Trusted Execution Environment) 사업을 재개함에 따라 보안 인식 강화에 따른 수혜 전망					
	(원, 십억원, 배)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EPS	PER
2016. 12A	16	(3)	(8)	(1,272)	N.A.	
2017. 12F	15	(1)	6	826	6.8	

- 편입 제외 종목: 오텍 (포트폴리오 조정으로 제외 -11.9%)

(단위: 원, %, 십억 원, 배)

종 목 (코드)	현재가 (수익률)	편입가 (편입일자)	2017년 추정실적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EPS	PER
크린앤사이언스 (045520)	12,450 (-0.4)	12,500 (11/13)	75	8	6	1,030	12.1
			- 미세먼지로 인한 환경 변화와 소득 수준 향상에 따른 공기청정기 수요의 구조적 증가 전망 - 국내 공기청정기 제조사들의 중국 진출에 따른 수혜 전망 - 10월 공기청정기 수요 증가와 신규 고객 유입 대응을 위한 MB(부직포) 증설로 레버리지 효과 기대				
송원산업 (004430)	26,950 (+35.8)	19,850 (10/18)	739	70	44	1,847	14.6
			- 미국 내 폴리머 수요 증가와 국내 윤활유 첨가제 Capa 증설로 비수기인 4분기 호실적 달성 전망 - 올해 4분기~내년 1분기 사이 신규 크래커 가동에 폴리머 안정제 수요가 증가할 전망 - 수년간 이어질 미국 석유화학 증설 랠리의 초입 단계로 향후 구조적 성장 지속 전망				
이엠텍 (091120)	18,050 (+28.0)	14,100 (7/20)	256	21	15	1,060	17.0
			- 국내 유일의 BA(Balanced Amature)스피커 생산 업체로 스피커 활용기술 발전에 따른 수혜 전망 - 지난해 베트남 공장 증설과 자동화 설비 확대를 통한 생산성 확대와 인건비 절감 예상 - 갤럭시노트8과 V30 출시로 하반기 마이크로스피커와 리시버 관련 매출 증가 전망				
KG ETS (151860)	4,100 (-2.8)	4,220 (7/5)	125	20	15	428	9.6
			- 스티프 판가와 동 가격이 동반 상승으로 수익성 개선을 위한 우호적인 환경 조성 - 국내 주요 FPCB업체들의 증설로 인한 전자소재 사업부의 실적 턴어라운드 전망 - 환경 규제 강화에 따른 지정 폐기물 비중 상승으로 환경 사업부의 수혜 전망				
SK (034730)	298,000 (+6.4)	280,000 (5/29)	92,094	6,175	6,025	39,396	7.6
			- 정부의 주주환원정책과 재벌기업 지배구조개선 정책에 따른 수혜 전망 - 글로벌 경기 회복에 따른 자회사들의 실적 상향 추세 지속 전망 - 실트론 인수를 통한 자회사 간 시너지와 탈석탄 발전정책에 따른 반사이익 전망				

■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상기 유망종목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현재 SK 발행주식을 기초자산으로 ELW(주식워런트증권)를 발행 중이며, 당해 ELW에 대한 유동성 공급자(LP)입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에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와 배우자는 자료 작성일 현재 본 자료와 관련해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호텔 · 레저: 하늘 문이 넓어진다

■ 인천공항 T2 개항으로 새로운 도약의 발판 마련

내년 1월 18일 인천공항 3단계 확장 사업의 일환이었던 제2여객터미널(T2)이 개항할 예정이다. T2가 개항되면서 인천공항의 여객처리 능력은 연 1,800만명(33.3%) 늘어난다. 이미 2016년 이용 여객수가 5,715만명으로 수용 능력을 초과했던 만큼 터미널 신설로 편의성이 높아지고 출입국자수도 더욱 빠르게 늘어날 것이다. 인천공항 추가 확장 계획(4단계: ~2023년, 최종단계: ~2029년)이 마무리되면 터미널 3개, 탑승동 1개를 보유하게 되며 연 1.3억명의 여객 처리 능력을 갖게 된다.

■ LCC의 약진이 가져온 변화

저비용항공사(LCC)들이 눈에 띄는 약진을 지속하고 있다. LCC 국제선 분담률은 금년 기준 25.8%로 2013년 9.6% 대비 가파르게 상승했다. LCC 활성화는 여행 비용 감소, 일정에 대한 다양한 선택 기회를 제공해 산업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LCC는 주요 인기 노선을 증편하고 신규 노선을 발굴해 국내 레저 시장 성장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것이다.

■ 영업환경 개선으로 호텔 · 레저업종 수혜 누릴 것

호텔 · 레저 업종 특성상 출입국자수 증대는 업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인프라 개선 및 기저 효과로 2018년 출국자수는 전년대비 14.2% 늘고 중국인 방한객은 75.4% 증가할 전망이다. 인천공항 확장으로 영업 환경이 개선돼 여행업, 면세점업, 카지노업은 수혜를 누릴 전망이며 하나투어, 파라다이스, 호텔신라를 추천주로 제시한다.

*상기 보고서는 2017년 12월 4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철강: 연말을 대비한 투자 전략(II)

■ 지금껏 보지 못한 중국 철근 가격

중국 철근 가격이 11월에만 21.7% 상승했다. 열연 5.9%, 후판 4.1%, 냉연은 3.4% 상승에 그친 것을 감안하면 이례적인 급등이다. 심지어 지난 주 목요일부터는 철근 가격이 냉연 가격을 상회했다.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2006년 이후 중국 철강 daily 가격에서 단 한 차례도 나타나지 않은 처음 보는 현상이다. 아마도 철강산업 역사에서 어떤 지역에서도 철근 가격이 냉연 가격을 넘는 것은 유례가 없을 것이다. 지금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철근 가격 급등이 그 만큼 역대급 현상인 것이다.

■ 동절기 감산 효과의 방증

우리는 철근 가격이 유례없는 급등을 한 이유가 동절기 감산에 있다고 판단한다. 12월 1일 현재 중국의 철근 유통 재고는 316만톤으로 지난해 동일 시기에 비해 92만톤이나 낮을 뿐만 아니라 역대 최저 수준이다. 11월 한 달 동안 전체 재고의 30%에 가까운 129만톤이 감소했다. 동절기 감산의 영향은 고로보다는 상대적으로 설비가 낙후된 전기로 생산에 더 큰 영향을 준다. 이에 고로에서 생산하는 열연과 냉연 같은 판재류보다 전기로에서 생산하는 철근 생산이 더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최근 급등했던 전극봉 가격이 철근 가격에 반영된 것도 철근 가격 급등의 원인 중 하나로 작용했을 것이다.

■ 12월엔 판재류에도 감산 효과 확대될 것

철근에 비하면 미미하나 중국 판재류 가격도 감산 효과로 11월부터 상승하고 있다. 그리고 12월부터 감산 효과가 배가될 것이다. 기간이 경과하면서 철강사 재고는 감소하는 가운데 춘철 재고 비축이 시작될 것이기 때문이다. 중국의 11월 중순 일평균 조강생산량이 1.7% 감소했다. 중국 동절기 감산이 11월 15일에 시작된 것을 감안하면 하순의 일평균 조강생산량은 이 보다 더 감소할 전망이다. 11월 중순 중국 철강사 재고는 12.3백만톤으로 2.5% 증가했지만 하순부터 빠르게 하락할 것이다.

■ 12월에도 철강 비중 확대 전략 유효할 것

우리는 11월 23일에 ‘연말을 대비한 투자전략’ 보고서를 통해 12월이 오기 전에 고로업체인 POSCO와 현대제철 매수에 나서야 한다고 제시한 바 있다. 그 이후 POSCO 주가는 8%, 현대제철 주가는 11.7% 상승했다. 그리고 주목할 부분은 현대제철 주가가 POSCO 주가보다 더 큰 폭으로 상승했다는 점이다. 주가가 저평가된 점이 부각된 결과라 판단한다. 우리는 12월에도 고로업체 매수 전략을 지속해야 한다고 판단한다. 중국 감산 효과가 더욱 확대되면서 주가 상승폭이 더 확대될 것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POSCO 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중국 철근 스프레드가 더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괴리는 오히려 더 확대되었다. 고로업체의 투자 매력도 더 높아진 것이다.

*상기 보고서는 2017년 12월 4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통신서비스: 10월 이동통신 시장 - 데이터 이용량 22.6% 급증

■ 10월 이동통신은 데이터 이용량 증가 지속, 마케팅 경쟁 완화

10월 이동통신 시장은 긍정적인 추세가 이어졌다. 1) 데이터 이용량 급증 지속, 2) 사물인터넷 위주의 성장세, 3) 경쟁 완화 등 추세가 강화됐다. LG유플러스와 KT는 점유율이 상승한 반면 SK텔레콤은 하락했다.

■ 1. 4G 가입자당 데이터 이용량은 6.9GB로 51,000 요금제 기본 데이터 상회

10월 LTE 가입자당 데이터 이용량은 6.9GB로 전년동월대비 22.6% 늘어 급증세를 이어갔다. 10월 데이터 이용량 증가율이 9월 24.1%에 비해 다소 둔화된 것은 10월 1~9일에 추석연휴(16년은 9월 14~18일)가 있었기 때문이다. 데이터 이용량 6.9GB는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요금 59,900원, 기본 제공량 11GB)보다 한 단계 낮은 51,000원 요금제의 제공량 6.5GB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3분기 가입자 평균 요금이 35,176원인 점을 감안하면 데이터 이용량 증가가 데이터 부가 서비스(데이터 추가 구매) 및 요금제 상향으로 이어질 것이다.

■ 2. 사물인터넷 위주 성장으로 마케팅비용 절감

10월 이동통신 가입자는 6,242만명으로 전월대비 0.3%, 전년동월대비 4.0% 늘었다. 가입자수가 17.5만명 늘어 가입자 성장세가 이어졌다. 순증 가입자 구성을 보면 자사 휴대폰가입자 비중은 16.8%로 낮은 반면 사물인터넷과 알뜰폰 가입자 비중은 각각 51.1%, 32.1%로 높았다. 10월은 자사 휴대폰 가입자 유치가 줄어 마케팅비용이 절감됐다. 10월 사물인터넷(이동통신 기준) 가입자수는 644만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4.3% 늘었으며 보급률이 10.3%로 높아졌다.

■ 3. 단말기 판매량은 신규 단말기 출시가 없어 전월대비 12.2% 감소

10월 이통 3사(알뜰폰 제외) 단말기 판매량(개통 가입자수)은 169만대로 전월대비 12.2%, 전년동월대비 17.9% 줄었다. 신규로 출시된 시장 선호 주력(플레그십) 단말기가 없어 판매량이 줄고 경쟁은 완화됐다. 개통 가입자 중 기기 변경 가입자 비중이 45.7%로 높은 수준이 유지됐다.

■ KT와 LG유플러스 점유율은 상승, SK텔레콤은 하락

이통 3사 모두 가입자는 증가 추세이나 가입자 유치 전략은 달랐다. KT는 사물인터넷과 알뜰폰 가입자 유치에 주력해 자사 휴대폰 가입자 유치가 미미했다. SK텔레콤은 알뜰폰 위주로 가입자를 유치했으며 사물인터넷과 자사 휴대폰 가입자는 미미한 수준에 그쳤다. LG유플러스는 사물인터넷과 요금이 비싼 자사 휴대폰 가입자 위주로 성장했다. LG유플러스가 가입자 성장의 질이 가장 우수했다. SK텔레콤의 가입자 점유율은 하락세를 지속한 반면 KT와 LG유플러스는 상승세를 지속했다.

■ 요금 규제 vs 배당 메리트, 5G 성장 기대감

통신주는 하반기 들어 규제 리스크로 하락세를 보이다가 최근 반등세로 돌아섰다. 9월 요금할인율 상향에 이어 연말, 연초에는 취약계층 요금감면을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요금할인과 취약계층 요금 감면 이슈는 이미 주가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보편 요금제와 단말기 완전 자급제는 중장기 이슈이며 실행에 논란이 많다. 18년 2월 KT가 세계 최초로 5G 시범서비스를 시행하며 이통 3사는 19년 초에 5G 조기 상용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5G에 대한 주파수 및 설비 투자 부담에도 AR, VR, 인공지능, 자율주행 등 신규 성장동력 확보로 투자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통신주는 배당수익률이 높아 배당주로 부각되고 있다.

*상기 보고서는 2017년 12월 4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두산밥캣(241560)

매수(신규)
목표가: 45,000원
종가(12/4): 35,150원

Upcycle에 올라타자

■ 북미 주택시장은 구조적인 upcycle

글로벌 소형건설장비 점유율 1위 두산밥캣(밥캣)에 대해 목표주가 45,000원(18F EBITDA에 EV/EBITDA 9배 적용)으로 분석을 시작한다. 매출의 70%를 차지하는 북미지역에서 주택건설 호황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호황은 수요증가/공급부족 때문인데 금리인상, 허리케인 피해에도 주택착공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 중이다. 올해 상반기까지는 자체 생산 문제로 매출액이 저조했지만 3분기부터 매출액이 본격적으로 늘기 시작했고 이러한 기조는 18년에도 이어질 것이다.

■ 유럽도 바닥 다지고 점진적 회복 중

유럽 지역 업황도 바닥을 다지고 회복의 기미가 보인다. 건설투자가 늘어나고 있고, Caterpillar의 retail 판매가 올해 하반기부터 늘어나기 시작한 것도 업황 회복의 주요 단서다. 밥캣은 지난 3년간 구조조정을 통해 생산/관리 효율화를 이룩했고, 유럽 compact 분야에서 가장 큰 시장인 MEX(소형굴삭기) 신모델을 출시하면서 매출액 반등을 노리고 있다.

■ 주주환원정책이 강화될 것, 미국 세제 개편 확정 시 이익 추정치도 상향

Heavy(중대형 굴삭기)사업부가 두산인프라코어에 양도될 예정이어서 18년부터 해당매출(17년 7,000억원)이 사라진다. 그럼에도 18년 영업이익은 전년대비 6.5% 증가한다. 차입금 리파이낸싱으로 이자비용도 줄어 순이익은 23% 증가할 것이다. 올해 추정 EBITDA는 5,500억원(순차입금/EBITDA 1.8배)이고 CAPEX는 1,010억원으로 기업이 선순환 구조에 진입했다. 주주환원정책이 강화될 당위성이 생겼다. 올해 추정 DPS는 최소 800원으로 배당수익률이 2%가 넘어 산업재 내에서 실적 안정성과 배당 매력이 돋보인다. 마지막으로 미국 세제 개편안이 상/하원 합의로 확정되면 법인세율이 25~30%(올해 추정 43%)로 크게 낮아질 수 있다.

	매출액 (십억원)	영업이익 (십억원)	순이익 (십억원)	EPS (원)	증감률 (%)	EBITDA (십억원)	PER (x)	EV/EBITDA (x)	PBR (x)	ROE (%)	DY (%)
2015A	4,041	386	137	109,488	84.5	494	NM	3.7	NM	5.1	-
2016A	3,950	414	169	2,089	(98.1)	526	17.2	9.2	1.1	5.5	2.0
2017F	4,011	433	197	1,964	(6.0)	550	17.9	8.2	0.9	5.5	2.3
2018F	3,631	461	242	2,417	23.0	583	14.5	7.3	0.9	6.3	2.6
2019F	3,990	539	295	2,944	21.8	665	11.9	6.0	0.9	7.4	2.8

주: 순이익, EPS 등은 지배주주지분 기준

*상기 보고서는 2017년 12월 4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송원산업(004430)

매수(유지)
목표가: 43,000원(상향)
종가(12/4): 26,300원

상승 변곡점 도래

■ 큰 폭의 실적 개선 전망

송원산업에 대한 목표주가를 43,000원으로 59% 상향 조정하며 큰 폭의 실적 개선에 앞서 매수를 추천한다. 목표주가를 크게 높인 것은 밸류에이션 시점을 2018년으로 변경하고 2018년 실적 전망을 상향 조정했기 때문이다. 한편 부분가치합산(SOTP) 방식에 적용한 목표 EV/EBITDA는 기존의 7.6배를 유지한다. 새로운 목표주가는 2018년 PER 11.4배 수준으로 2020년 이후로도 계속될 구조적인 이익 성장세를 감안하면 부담스러운 수준은 아니다.

■ 폴리머 안정제 판가 인상 시작

최근 발표된 폴리머 안정제 판가 인상 결정을 반영하여 2018년 영업이익 추정치를 7% 상향 조정했다(전년대비 103% 증가). 12월은 전통적으로 최대 비수기이지만 송원산업은 폴리머 안정제 공급이 빠듯해 2017년 12월부터 광안정제와 산화방지제 판가를 각각 5~15%, 5~10% 인상한다고 11월 27일 발표했다. 2018년 폴리머 안정제 판가가 10% 추가 인상될 경우 송원산업의 영업이익은 전년대비 205% 증가한 2,03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 폴리머 안정제 공급, 조만간 더욱 빠듯해져

신규 플라스틱 생산설비가 가동을 시작하면서 수요가 단계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폴리머 안정제 판가가 연이어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 주목한다. 또한 미국의 에탄분해설비(ECC)와 중국의 나프타분해설비(NCC) 신증설이 각각 2020년과 2025년까지 계속되면서 폴리머 안정제의 구조적 상승세는 수년간 이어질 전망이다. 12개 주요 에틸렌 설비가 2017년 4분기~2018년 상반기 가동을 시작하고 앞으로 2~3년간 유의미한 폴리머 안정제 증설 계획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폴리머 안정제 공급은 더욱 빠듯해질 전망이다. 이는 주가상승의 촉매로 작용할 것이다.

	매출액 (십억원)	영업이익 (십억원)	순이익 (십억원)	EPS (원)	증감률 (%)	EBITDA (십억원)	PER (x)	EV/EBITDA (x)	PBR (x)	ROE (%)	DY (%)
2015A	654	49	30	1,241	NM	84	11.7	7.5	1.1	9.9	0.5
2016A	694	76	43	1,802	45.2	111	9.5	5.8	1.2	12.9	0.8
2017F	745	67	44	1,827	1.4	99	13.3	8.4	1.5	11.7	0.6
2018F	959	135	90	3,763	106.0	168	6.5	4.9	1.2	20.6	0.6
2019F	1,126	180	124	5,168	37.3	213	4.7	3.6	1.0	22.9	0.6

주: 순이익, EPS 등은 지배주주지분 기준

*상기 보고서는 2017년 12월 4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주요 증시 지표

구 분		11/29(수)	11/30(목)	12/1(금)	12/4(월)	12/5(화)	
유가증권	종합주가지수	2,512.90	2,476.37	2,475.41	2,501.67	2,510.12	
	등락폭	-1.29	-36.53	-0.96	26.26	8.45	
	등락종목	상승(상한)	360(0)	296(0)	346(1)	400(1)	520(5)
		하락(하한)	426(0)	504(0)	426(0)	387(0)	282(0)
	ADR	95.76	94.55	92.14	93.64	96.47	
	이격도	10 일	99.39	98.17	98.36	99.51	99.92
		20 일	99.12	97.81	97.94	99.07	99.47
	투자심리	50	40	40	50	50	
	거래량	(백만 주)	301	339	289	324	389
	거래대금	(십억 원)	5,278	9,398	5,740	6,056	5,836
코스닥	코스닥지수	781.72	771.42	787.7	782.45	774.12	
	등락폭	8.6	-10.3	16.28	-5.25	-8.33	
	등락종목	상승(상한)	621(3)	318(8)	745(5)	469(6)	664(6)
		하락(하한)	511(0)	854(0)	378(0)	684(1)	483(0)
	ADR	101.55	98.88	101.48	100.21	101.59	
	이격도	10 일	99.60	98.39	100.32	99.69	98.82
		20 일	103.84	101.96	103.52	102.30	100.73
	투자심리	60	50	60	50	40	
	거래량	(백만주)	755	1054	884	821	842
	거래대금	(십억원)	6,725	7,136	6,900	6,956	6,798

◆주체별 당일 순매수 동향

(단위: 십억원)

구 분	개 인	외국인	기관계 (금융투자)	(보험)	(투신)	(사모)	(은행)	(연기금 등)	기 타		
유가증권	매수	2,877.7	1,494.1	1,389.5	309.0	99.9	211.0	137.4	16.9	615.3	82.5
	매도	3,225.3	1,440.3	1,125.8	235.3	80.7	166.2	84.5	11.1	548.0	52.4
	순매수	-347.7	53.8	263.7	73.7	19.2	44.7	53.0	5.8	67.4	30.1
	12월 누계	-465.4	7.1	441.6	181.7	58.9	111.0	84.2	13.0	-7.2	16.6
	17년 누계	-6,129.6	8,084.6	-6,813.6	8,494.4	-2,078.2	-3,516.7	-238.6	-774.8	-8,700.0	4,858.6
코스닥	매수	6,101.6	478.6	202.2	88.3	15.2	41.4	27.0	2.8	27.6	42.2
	매도	6,036.3	512.2	227.8	60.4	15.7	56.4	50.2	5.1	39.9	48.3
	순매수	65.3	-33.6	-25.6	27.9	-0.5	-15.0	-23.3	-2.3	-12.3	-6.2
	12월 누계	28.1	-25.1	38.6	101.5	-0.1	25.2	-21.5	-9.9	-56.5	-41.6
	17년 누계	2,163.3	2,626.4	-2,954.9	187.4	-336.9	-858.1	-678.7	-88.4	-1,180.2	-1,834.9

주: 외국인은 외국인투자등록이 되어있는 투자자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KOSPI 기관별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투		신	
순 매 수		순 매 도	
운수장비	13,275	미분류	-2,895
화학	10,232	의약품	-2,285
운수창고	7,614	종이목재	-1,978
아모레퍼시픽	5,527	영풍	-4,904
POSCO	3,867	LG화학	-3,429
현대모비스	3,620	삼성물산	-2,839
현대글로비스	3,542	삼성SDI	-2,739
삼성전자	3,406	KT&G	-2,609

연 기 금			
순 매 수		순 매 도	
화학	28,471	전기전자	-47,210
서비스업	17,445	보험업	-22,831
통신업	11,756	기타금융업	-9,115
POSCO	9,699	삼성생명	-22,907
아모레퍼시픽	8,560	삼성전자	-20,590
LG유플러스	7,595	삼성SDI	-18,199
팬오션	7,162	SK하이닉스	-7,626
기아차	6,628	현대모비스	-6,391

(체결기준: 백만원)

은			
순 매 수		순 매 도	
미분류	12,163	기타금융업	-918
전기전자	2,726	통신업	-496
건설업	2,647	의약품	-370
TRUE 코스피 양매도 ETN	4,636	TIGER 경기방어	-1,964
KODEX 코스닥150 레버리지	3,865	ARIRANG 고배당주	-1,948
KODEX 200	3,259	TIGER 중국소비테마	-1,796
삼성전자	1,920	TIGER 200선물레버리지	-1,208
KBSTAR 코스닥150선물레버리지	1,284	LS	-1,028

보			
순 매 수		순 매 도	
운수장비	8,138	전기전자	-13,005
건설업	4,425	서비스업	-1,500
통신업	4,164	의약품	-1,285
삼성중공업	3,948	삼성전자	-5,166
한국전력	3,046	KODEX 200	-3,596
LS	3,027	SK하이닉스	-2,851
아모레퍼시픽	2,864	LG화학	-2,747
TIGER 200	2,595	삼성SDI	-2,616

◆ KOSPI 기관/외인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기			
순 매 수		순 매 도	
화학	63,286	전기전자	-21,631
운수장비	44,667	미분류	-20,288
통신업	34,190	보험업	-19,119
아모레퍼시픽	19,757	삼성SDI	-23,210
한국전력	17,433	삼성생명	-23,094
POSCO	17,078	KODEX 코스닥150 레버리지	-17,888
LG유플러스	15,169	LG화학	-12,574
S-Oil	13,980	LG디스플레이	-11,712
팬오션	12,106	코오롱	-7,381
KT	11,083	KT&G	-7,098
기아차	10,580	삼성전기	-6,927
삼성중공업	9,515	영풍	-6,289
현대건설	9,460	GS	-4,868

외 국 인			
순 매 수		순 매 도	
철강금속	54,813	전기전자	-85,157
서비스업	31,808	화학	-8,701
기타금융업	21,105	통신업	-7,657
POSCO	35,858	삼성전자	-58,591
GS건설	10,364	SK하이닉스	-26,631
GS리테일	10,218	삼성SDI	-25,656
현대중공업	10,106	LG유플러스	-14,049
엔씨소프트	8,733	아모레퍼시픽	-12,859
고려아연	8,440	롯데쇼핑	-8,470
하나금융지주	7,389	삼성바이오로직스	-5,815
LG화학	7,368	TIGER 200	-4,733
두산중공업	7,281	한화테크윈	-4,367
신한지주	7,152	삼성물산	-4,323

주: 외국인인 외국인투자등록이 되어있는 투자자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KOSDAQ 기관별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투 신		연 기 금				
	순 매 수	순 매 도	순 매 수	순 매 도			
방송서비스	3,264	반도체	-5,305	오락,문화	2,115	도매	-3,964
IT부품	2,596	도매	-4,221	금융	928	기계,장비	-2,421
금융	2,130	소프트웨어	-3,310	사업지원	507	디지털컨텐츠	-1,617
제이콘텐트리	2,325	셀트리온헬스케어	-4,031	파라다이스	1,685	셀트리온헬스케어	-4,110
CJ E&M	2,307	에스트래픽	-3,029	동진씨미켄	1,456	SK머티리얼즈	-2,179
이녹스첨단소재	1,857	파라다이스	-2,380	와이엠티	531	필어비스	-1,246
인터플렉스	1,623	주성엔지니어링	-1,842	셀트리온	512	에스에프에이	-926
모두투어	1,455	신라젠	-1,842	모두투어	507	고영	-889

(체결기준: 백만원)

	은 행		보 험				
	순 매 수	순 매 도	순 매 수	순 매 도			
디지털컨텐츠	511	음식료,담배	-1,254	디지털컨텐츠	3,206	반도체	-1,483
방송서비스	324	IT부품	-1,081	금융	1,057	도매	-1,272
전문기술	204	계약	-483	소프트웨어	677	화학	-687
웹젠	418	체리부로	-1,062	인터플렉스	1,250	파라다이스	-996
SK머티리얼즈	265	대주전자재료	-540	제이콘텐트리	1,102	셀트리온	-903
인터플렉스	258	코오롱생명과학	-531	위메이드	971	CJ오쇼핑	-823
JYP Ent.	231	셀트리온헬스케어	-475	더블유게임즈	919	셀트리온헬스케어	-732
포스코 ICT	210	알에스오โต메이션	-336	웹젠	753	덕우전자	-633

◆ KOSDAQ 기관/외인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기 관		외 국 인				
	순 매 수	순 매 도	순 매 수	순 매 도			
금융	4,777	도매	-11,979	IT부품	14,767	연구,개발	-36,241
방송서비스	4,409	반도체	-9,422	반도체	4,507	계약	-15,195
IT부품	3,558	소프트웨어	-9,317	금속	3,222	오락,문화	-10,161
제이콘텐트리	5,257	셀트리온헬스케어	-11,284	인터플렉스	6,701	신라젠	-34,325
인터플렉스	5,077	에스트래픽	-9,799	메디톡스	4,263	파라다이스	-8,713
모두투어	3,259	신라젠	-4,335	에코프로	2,808	셀트리온	-6,291
이녹스첨단소재	2,788	주성엔지니어링	-3,027	고영	2,585	에스트래픽	-5,635
메디톡스	2,450	파라다이스	-2,143	이녹스첨단소재	1,916	코미팜	-5,365
CJ E&M	2,104	에코프로	-2,053	안랩	1,695	모두투어	-3,222
CJ오쇼핑	2,034	티슈진	-1,807	휴젤	1,542	셀트리온헬스케어	-3,049
스튜디오드래곤	1,909	셀트리온	-1,783	에프에스티	1,498	텔콘	-3,047
동진씨미켄	1,482	알에스오โต메이션	-1,566	와이엠씨	1,283	CMG계약	-2,365
JYP Ent.	1,129	테스	-1,237	비덴트	1,247	JYP Ent.	-1,807

주: 외국인인 외국인투자등록이 되어있는 투자자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기관/외인 연속 순매수 상위 종목

(단위: 일)

KOSPI				KOSDAQ			
기 관		외 국 인		기 관		외 국 인	
TIGER	40 일	텔코웨어	21 일	태광	37 일	나이스디앤비	32 일
원유선물Enhanced(H)				넥스텐	31 일	NICE평가정보	31 일
에스엘	37 일	GKL	19 일	이화공영	29 일	판타지오	30 일
현대코퍼레이션홀딩스	32 일	화승인더	17 일	AP위성	23 일	진로발효	26 일
신영증권	27 일	천일고속	17 일	달리	22 일	경동제약	23 일
에이엔피	23 일	LG화학	15 일	인터로조	21 일	골드퍼시픽	22 일
동일산업	22 일	선도전기	14 일	우리기술	21 일	성우테크론	19 일
삼익THK	21 일	한국철강	11 일	수성	19 일	하이즈항공	18 일
동서	20 일	호텔신라	10 일				

◆ 기관/외인 5일간 누적 순매수 상위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KOSPI				KOSDAQ			
기 관		외 국 인		기 관		외 국 인	
삼성전자	139,804	POSCO	94,160	셀트리온	34,541	신라젠	176,394
현대모비스	91,548	LG전자	60,635	메디톡스	30,976	셀트리온헬스케어	53,038
아모레퍼시픽	85,173	KB금융	53,702	제이콘텐트리	24,531	필어비스	17,830
POSCO	76,984	LG화학	53,253	CJ오쇼핑	19,360	에코프로	13,649
LG유플러스	76,387	현대차	48,558	휴젤	17,754	동진썬미켐	10,156
팬오션	51,195	NAVER	43,713	비에이치	13,014	서울반도체	9,724
SK텔레콤	45,142	GS리테일	43,623	스튜디오드래곤	12,192	엘앤에프	7,927
현대제철	44,063	엔씨소프트	42,436	모두투어	10,922	텔콘	6,333

◆ 기관/외인 동반 순매수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종 목	KOSPI			KOSDAQ			
	기 관	외 국 인	합 계	기 관	외 국 인	합 계	
철강금속	22,485	54,813	77,299	IT부품	3,558	14,767	18,325
운수장비	44,667	16,949	61,616	금융	4,777	1,322	6,100
서비스업	16,946	31,808	48,753	방송서비스	4,409	676	5,084
POSCO	17,078	35,858	52,936	인터플렉스	5,077	6,701	11,778
한국전력	17,433	4,224	21,658	메디톡스	2,450	4,263	6,712
GS건설	5,487	10,364	15,851	제이콘텐트리	5,257	46	5,303
현대제철	9,081	6,502	15,583	이녹스첨단소재	2,788	1,916	4,704
현대미포조선	8,328	7,046	15,374	CJ오쇼핑	2,034	1,018	3,052
삼성중공업	9,515	5,427	14,942	동진썬미켐	1,482	749	2,232
현대중공업	4,510	10,106	14,616	휴젤	643	1,542	2,185
현대건설	9,460	4,882	14,342	CJ E&M	2,104	30	2,134
SK텔레콤	7,938	6,289	14,227	에프에스티	92	1,498	1,590
두산중공업	6,062	7,281	13,344	슈피겐코리아	823	694	1,517

주: 기관/외인 동반 순매수 종목 가운데 기관/외인 합계 순매수 금액이 큰 순서대로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기관/외인 연속 순매도 상위 종목

(단위: 일)

KOSPI				KOSDAQ			
기 관		외 국 인		기 관		외 국 인	
한양증권	34 일	세방	26 일	티플렉스	21 일	슈프리마	15 일
KSS해운	25 일	한국프랜지	21 일	서연탑메탈	21 일	하림	15 일
경동도시가스	24 일	S&T중공업	21 일	삼현철강	21 일	인터파크홀딩스	15 일
대한전선	24 일	에스엘	19 일	대양제지	21 일	큐렉소	13 일
동일제강	21 일	한화테크윈	18 일	일지테크	16 일	덕산네오룩스	12 일
하이트진로홀딩스	20 일	KODEX 은행	16 일	에스앤씨엔진그룹	15 일	HB테크놀러지	12 일
일정실업	18 일	삼천리	15 일	유니셈	13 일	크리스탈신소재	11 일
대동전자	16 일	새론오토모티브	14 일	키움스팩4호	12 일	SM C&C	11 일

◆ 기관/외인 5일간 누적 순매도 상위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KOSPI				KOSDAQ			
기 관		외 국 인		기 관		외 국 인	
SK하이닉스	-81,434	삼성전자	-741,976	셀트리온헬스케어	-52,802	셀트리온	-61,067
삼성SDI	-36,239	SK하이닉스	-211,906	체리부로	-17,836	인터플렉스	-14,000
KODEX 코스닥150 레버리지	-36,196	LG유플러스	-61,066	이녹스첨단소재	-14,920	JYP Ent.	-10,662
KODEX 레버리지	-29,969	현대모비스	-59,408	서울반도체	-14,766	모두투어	-10,265
삼양패키징	-27,137	LG이노텍	-43,885	비즈니스온	-14,259	스튜디오드래곤	-10,134
LG화학	-25,651	카카오	-38,117	인터플렉스	-13,288	오가닉티코스메틱	-7,203
삼성생명	-23,575	삼성SDI	-33,096	주성엔지니어링	-11,434	코미팜	-6,558
삼성물산	-22,486	롯데쇼핑	-32,250	에스트라픽	-9,799	아모텍	-6,086

◆ 기관/외인 동반 순매도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KOSPI					KOSDAQ				
종 목	기 관	외 국 인	합 계		종 목	기 관	외 국 인	합 계	
전기전자	-21,631	-85,157	-106,788		연구,개발	-3,940	-36,241	-40,181	
미분류	-20,288	-5,274	-25,562		제약	-2,705	-15,195	-17,899	
보험업	-19,119	3,391	-15,728		소프트웨어	-9,317	-3,807	-13,124	
삼성SDI	-23,210	-25,656	-48,866		신라젠	-4,335	-34,325	-38,660	
KODEX 코스닥150 레버리지	-17,888	-12	-17,900		에스트라픽	-9,799	-5,635	-15,434	
삼성바이오로직스	-1,383	-5,815	-7,198		셀트리온헬스케어	-11,284	-3,049	-14,333	
삼성물산	-2,578	-4,323	-6,901		파라다이스	-2,143	-8,713	-10,856	
GS	-4,868	-26	-4,893		셀트리온	-1,783	-6,291	-8,074	
KODEX 인버스	-2,594	-2,201	-4,795		코미팜	-731	-5,365	-6,096	
한진칼	-1,279	-1,362	-2,641		텔콘	-810	-3,047	-3,858	
현대상선	-245	-1,905	-2,150		CMG제약	-1,050	-2,365	-3,415	
KODEX 200선물인버스2X	-1,976	-123	-2,099		주성엔지니어링	-3,027	-248	-3,275	
LIG넥스원	-156	-1,719	-1,875		알에스오โต메이션	-1,566	-653	-2,219	

주: 기관/외인 동반 순매수 종목 가운데 기관/외인 합계 순매수 금액이 큰 순서대로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공매도 거래대금 상위 종목

(체결기준: 천주, 백만원)

KOSPI		
종 목	주 수	금 액
LG이노텍	210	32,316
KODEX 200	407	13,324
LG디스플레이	390	11,753
한국항공우주	173	8,623
LG화학	18	7,550
아모레퍼시픽	15	4,995
현대제철	82	4,944
POSCO	15	4,903

KOSDAQ		
종 목	주 수	금 액
셀트리온	143	29,892
신라젠	154	16,585
에이치엘비	129	5,110
비에이치	145	3,882
인터플렉스	80	3,827
메디투스	8	3,764
파라다이스	126	3,392
차바이오텍	150	3,265

주: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 기준임

◆ 대차잔고 상위 종목

(체결기준: 천주, 백만원)

KOSPI		
종 목	주 수	금 액
삼성전자	3,664	9,405,414
SK하이닉스	35,079	2,774,782
LG디스플레이	49,187	1,507,570
삼성바이오로직스	3,284	1,177,492
엔씨소프트	2,521	1,130,663
아모레퍼시픽	3,088	1,040,561
LG생활건강	839	1,034,914
하나금융지주	21,296	994,544

KOSDAQ		
종 목	주 수	금 액
셀트리온	20,826	4,356,729
신라젠	9,737	1,053,515
셀트리온헬스케어	6,857	595,226
로엔	3,191	348,098
바이로메드	1,960	314,579
파라다이스	10,990	297,826
포스코캠텍	4,178	141,204
에이치엘비	3,604	136,936

주: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 기준임

◆ 대차잔고 5일간 누적 순증/감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천주)

KOSPI			
	순 증		순 감
미분류	10,124	의약품	-1,895
은행	1,711	화학	-1,608
기타금융업	1,326	서비스업	-1,443
KODEX 200	10,557	한화생명	-2,356
팬오션	2,644	두산인프라코어	-1,553
아이엔지생명	2,474	파워 200	-1,319
우리은행	2,400	삼성중공업	-1,219
한국항공우주	946	삼성물산	-998
한온시스템	901	SK증권	-972
하나금융지주	776	삼성엔지니어링	-835
롯데지주	765	코오롱인더	-781
ARIRANG 200	668	신성이엔지	-779
제일기획	610	한올바이오파마	-754

KOSDAQ			
	순 증		순 감
연구,개발	2,525	제약	-2,545
IT부품	2,079	음식료,담배	-1,047
반도체	2,042	인터넷	-580
신라젠	2,164	셀트리온	-1,604
셀트리온헬스케어	1,363	하림	-705
주성엔지니어링	1,128	처음앤씨	-578
차이나하오란	1,000	루트로닉	-392
이화전기	959	지엔코	-340
이트론	853	바이넥스	-307
상보	715	대아타이어	-307
HB테크놀러지	607	홈캐스트	-299
글로벌텍스프리	503	에이치엘비	-282
AP시스템	503	카테아	-279

주: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 기준임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증시 거래 주체별 매매 동향

(단위: 십억)

구 분	연간 누계	월간 누계	5일간 누계	11/29(수)	11/30(목)	12/1(금)	12/4(월)	12/5(화)
외국인	8,084.6	7.1	-755.0	-162.1	-600.0	-193.9	147.2	53.8
기관계	-6,813.6	441.6	1,014.6	202.5	370.5	89.8	88.2	263.7
(투신)	-3,516.7	111.0	163.3	23.7	28.5	51.6	14.7	44.7
(연기금)	2,852.0	87.5	167.6	33.6	46.6	12.3	37.0	38.2
(은행)	-774.8	13.0	16.5	3.9	-0.4	6.2	1.1	5.8
(보험)	-2,078.2	58.9	101.4	-1.0	43.5	26.6	13.1	19.2
개인	-6,129.6	-465.4	-352.7	-80.6	193.3	140.5	-258.2	-347.7
기타	4,858.6	16.6	93.0	40.2	36.2	-36.3	22.8	30.1

주: KOSDAQ 제외

◆ 증시 자금 동향

(단위: p, 십억원, %)

구 분	2015	2016	2017	11/28(화)	11/29(수)	11/30(목)	12/1(금)	12/4(월)
KOSPI	1,961.3	2,026.5	2,512.9	2,514.2	2,512.9	2,476.4	2,475.4	2,501.7
고객예탁금	22,695.6	22,754.4	27,071.5	27,071.5	26,006.1	26,060.3	26,348.1	25,794.3
(증감액)	6,853.1	58.8	3,305.9	665.8	-1,065.4	54.2	287.8	-553.8
(회전율)	28.8	24.8	48.5	48.5	46.2	63.4	48.0	50.4
실질예탁금증감	7,687.7	-3,211.2	-1,285.2	535.1	-630.0	-129.8	68.2	-325.4
신용잔고(KOSPI)	3,035.6	2,929.1	4,736.3	4,736.3	4,785.1	4,758.5	4,744.8	4,775.6
신용잔고(KOSDAQ)	3,491.2	3,848.7	5,244.6	5,244.6	5,260.5	5,271.7	5,276.7	5,275.8
미수금	151.0	125.6	165.6	165.6	195.8	212.4	176.6	200.9

주1: 실질예탁금 증감=고객예탁금증분+개인순매수-(신용증분+미수금 증분) / 고객 예탁금 회전율=(KOSPI, KOSDAQ 거래대금/고객예탁금)*100
 주2: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까지 제공, KOSCOM

◆ 국내 수익증권 유출입 동향

(단위: 십억원)

구 분	설정 잔액	연간 누계	월간 누계	11/27(월)	11/28(화)	11/29(수)	11/30(목)	12/1(금)
전체주식형	73,368	-2,277	54	-85	295	24	504	54
(ex.ETF)		-3,905	83	0	112	85	83	83
국내주식형	54,781	-3,856	15	-122	261	-13	424	15
(ex.ETF)		-5,552	47	-37	77	48	47	47
해외주식형	18,587	1,580	39	37	35	37	80	39
(ex.ETF)		1,647	36	37	35	37	36	36
주식혼합형	9,202	1,119	3	0	17	12	67	3
채권혼합형	19,703	-6,810	-29	-20	-47	-35	-29	-29
채권형	99,427	-3,411	-312	28	-60	-66	109	-312
MMF	114,808	6,643	658	143	-766	-991	-3,216	658

주: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까지 제공, 금융투자협회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주요 이머징마켓 외국인 매매 동향

(단위: 백만달러)

국가	연간 누계	월간 누계	5일간 누계	11/29(수)	11/30(목)	12/1(금)	12/4(월)	12/5(화)
한국	7,011	6	-696	-150	-552	-179	136	50
대만	5,844	-321	-999	-222	-456	-256	-48	-17
인도	8,754	0	-190	-97	-94	-	-	-
인도네시아	-2,710	-63	-750	-522	-165	-	-63	-
태국	-590	-68	-122	-50	-4	-63	-5	-
남아공	-4,459	13	-518	124	-654	13	-	-
필리핀	1,027	-13	11	24	-	-4	-9	-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 주요 금리, 환율 및 원자재 가격

(단위: %, 원, 엔, p, 달러)

구분	2016년말	11/29(수)	11/30(목)	12/1(금)	12/4(월)	12/5(화)
회사채 (AA-)	2.14	2.67	2.63	2.64	2.64	2.66
회사채 (BBB-)	8.27	8.92	8.89	8.89	8.90	8.92
국고채 (3년)	1.64	2.11	2.08	2.08	2.08	2.11
국고채 (5년)	1.80	2.30	2.26	2.28	2.27	2.30
국고채 (10년)	2.08	2.48	2.48	2.49	2.49	2.50
미 국채 (10년)	2.56	2.38	2.41	2.36	2.37	-
일 국채 (10년)	0.06	0.03	0.04	0.04	0.04	-
원/달러	1,210.50	1,076.80	1,088.20	1,086.40	1,088.70	1,085.80
원/100엔	1,030.04	960.91	971.52	964.31	963.96	961.39
엔/달러	117.52	112.06	112.01	112.66	112.94	112.94
달러/유로	1.05	1.18	1.19	1.19	1.18	1.18
CRB 지수	193.97	193.73	191.98	193.52	191.51	-
LME 지수	2,663.2	3,186.1	3,176.2	3,219.4	3,206.0	-
BDI	961	1,536	1,578	1,626	1,662	-
유가 (WTI, 달러/배럴)	53.90	57.35	57.37	58.36	57.41	-
금 (달러/온스)	1,131.35	1,287.20	1,274.90	1,278.80	1,275.70	-

자료: Bloomberg, KOSCOM, 한국투자증권

한 눈에 보는 증시 일정

월	화	수	목	금
27	28	29	30	1
	美> 10월 신규주택매매(천건) (685, 624, 645) 10월 도매 재고 MoM (-0.4%, 0.4%, 0.1%) 11월 소비자대지수 (129.5, 124.0, 125.9) 유럽> 10월 M3 통화공급 YoY (5.0%, 5.1%, 5.1%)	美> MBA 주택용자 신청지수 (-3.1%, n/a, 0.1%) 3분기 GDP 연간화 QoQ (3.3%, 3.2%, 3.0%) 유럽> 11월 소비자대지수 (0.1, 0.1, 0.1)	韓> 금융통화위원회 (1.50%, 1.50%, 1.25%) 美>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천건) (238, 240, 239) 10월 개인소득 (0.4%, 0.3%, 0.4%) 11월 시카고 구매자협회 (63.9, 62.0, 66.2) 日> 10월 광공업생산 MoM (0.5%, 1.8%, -1.0%)	韓> 3Q GDP YoY (3.8%, 3.6%, 3.6%) 11월 CPI YoY (1.3%, 1.8%, 1.8%) 11월 수출 YoY (9.6%, 10.2%, 7.1%) 美> 11월 마켓 제조업 PMI (53.9, 54.0, 53.8) 中> 11월 차이신 중국 PMI 제조업 (50.8, 50.9, 51.0) 日> 10월 실업률 (2.8%, 2.8%, 2.8%) 10월 CPI YoY (0.2%, 0.2%, 0.7%) 유럽> 11월 유로존 제조업 PMI (60.1, 60.0, 60.0)
4	5	6	7	8
美> 10월 내구재주문 (-0.8%, -1.1%, -1.2%) 10월 제조업수주 (-0.1%, -0.4%, 1.4%)	美> 10월 무역수지(십억달러) (n/a, -45.4, -43.5) 유럽> 3Q GDP SA YoY (n/a, 2.5%, 2.5%)	美> MBA 주택용자 신청지수 (n/a, n/a, -3.1%)	美>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천건) (n/a, n/a, 238)	美> 11월 비농업고용자수 변동(천명) (n/a, 210, 261) 11월 실업률 (n/a, 4.1%, 4.1%) 12월 미시간대 소비자신뢰 (n/a, 98.9, 98.5) 10월 도매재고 MoM (n/a, n/a, -0.4%) 日> 3Q GDP SA YoY (n/a, 0.1%, 0.1%) 10월 BoP 경상수지(십억엔) (n/a, n/a, 2271.2)
11	12	13	14	15
中> 11월 CPI YoY (n/a, 1.8%, 1.9%) 11월 PPI YoY (n/a, 5.8%, 6.9%)	美> 11월 PPI MoM (n/a, n/a, 0.4%) 유럽> 12월 ZEW 서베이 예상 (n/a, n/a, 30.9) 日> 11월 PPI YoY (n/a, n/a, 3.4%) 10월 3차 산업지수 MoM (n/a, n/a, -0.2%)	美> FOMC 금리결정 (n/a, 1.50%, 1.25%) MBA 주택용자 신청지수 (n/a, n/a, -3.1%) 11월 CPI MoM (n/a, 0.4%, 0.1%) 日> 10월 핵심기계수주 MoM (n/a, n/a, -8.1%)	韓> 선물옵션만기일 美>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천건) (n/a, n/a, n/a) 11월 소매판매 추정 MoM (n/a, 0.2%, 0.2%) 12월 마켓 제조업 PMI (n/a, n/a, n/a) 유럽> ECB 통화정책회의 (n/a, -0.4%, -0.4%) 12월 마켓 제조업 PMI (n/a, n/a, n/a) 日> 12월 닛케이 제조업 PMI (n/a, n/a, 53.6)	韓> KOSDAQ 150 정기변경 美> 11월 광공업생산 MoM (n/a, n/a, 0.9%) 日> 4Q 단칸 대형 제조업 지수 (n/a, n/a, 22) 4Q 단칸 대형 전체산업 Capex (n/a, n/a, 7.7%)

주: 괄호안은(발표치, 블룸버그 예상치, 이전치) 순이며 예상치는 변동 가능
 발표일자는 한국시간 기준 (단, 오전 6시 이전에 발표되는 지표는 전일 기입)
 실적발표일은 Bloomberg, 기업 공식 기준으로 작성 (변동 가능, *표시는 한국시간 당일 아침)

